

(주)기산텔레콤

(주)기산텔레콤

벤처로부터 세계적인 첨단 기술업체로 도약한다

1994년에 설립된 (주)기산텔레콤은 유/무선통신 및 초고속 통신 장비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기산텔레콤은 창업과 동시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산 통신제품 생산을 목표로 삼고 단계적 기술개발전략을 채택하여 광범위한 통신 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장기적 기술의 노하우를 축적, 전송시스템, 기지국시스템, IMT-2000 및 통신장비, 인터넷 등으



Telcom & Satellite / IMT-2000 전시회 참가 모습

로 사업영역을 넓혀나가 단기적인 과욕과 일회적인 개발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기술 개발 투자를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97년부터 외국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고부가가치 장비제조에 뛰어들어 T1 회선 증배장치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통신 서비스 업체에 공급했다.

98년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광중계 시스템의 핵심 장치인 파장분할 다중장치(WDM)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1천만 달러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었으며, 2000년 1월부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PCS 3사 공용 지하철 중계기를 국산화하여 공급했다. 또한 99년에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주로 수입해 오던 에코캐슬러(Echo Canceller)도 국산화하여 루슨트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국내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독자적인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국내 통신업체에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신시스템 운용을 가능케 하고 세계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99 한경/KTB 주관 벤처기업대상인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중소기업청 주관 제 3회 벤처기업 대상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 국내 정보통신의 첨단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회사의 경영현황 또한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창업 5년 만에 매출액 3백억 원대의 규모를 이룩하였으며 99년 11월에는 코스닥에 상장하여 첨단 정보통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 5월에는 미국에 기산텔레콤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중국 등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2000년 6월에는 TUV 라인란트로부터 통신장비 국제 규격인 CE 마크를, 7월에는 국제 표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기산텔레콤의 전 제품을 국제 규격화할 예정이다. 이제 바야흐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해를 맞이하는 것이다.

전체 인력의 77%가 R&D 인력

기산텔레콤이 여러 분야에서 상을 수상하게 된 데에는 회사 인력구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기산텔레콤은 전체인력의 77%가 R&D 관련인원으로 통신시스템 기술연구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의 효율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근처에 사원아파트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자율 출퇴근제와 간편한 복장 자율화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회사의 핵심기술확보의 전략은 창업 시부터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로 재투자하고 있으며 통신시스템 장비 및 장비의 국산화 개발을 통해 국내시장의 독점적인 시장 선점 및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단계적인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정보통신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개발로 통신시스템 전 분야의 응용 및 급변하는 세계의 기술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내 벤처의 개념인 PM(Project Manager)제도를 도입하여 누구나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시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특허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 분위기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산텔레콤이 기술력으로 앞서는 이유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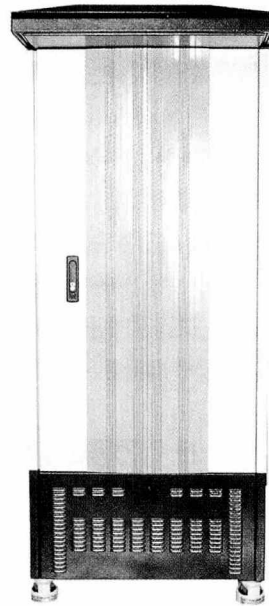
무선통신에서부터 IMT-2000까지

(주)기산텔레콤의 대표적인 생산제품은 광 RF 모듈, 중계기(In-building, 지하철 통합 중계기, 광분산 중계기) 등 유/무선통신 부문과 에코 캔슬러 VoIP, SDSL 등 인터넷/초고속 통신 부문이 있으며 신규 개발 제품인 IP-BS, VoIP 솔루션, IP-Phone, DRAN, HDR 등에서 신규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무선통신 분야의 광 RF모듈은 전기적 신호를 광신호로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주는 광중계기의 핵심부품으로 99년에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광모듈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무선 인터넷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지국이 데이터 트래픽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소형 기지국 장비인 IP-RAN은 지난해 말 출시되어 IS-95C, HDR, IMT-2000 등 시장의 성장과 함께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으로 압축된 음성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 전송하는



기산 텔레콤의 IMT-2000용 중계시스템 DRAN

(주)기산텔레콤

중계기인 DRAN(Digital Radio Access Network) 역시 중요 사업 제품이다. 향후 기지국으로 발전 가능한 이 제품은 IMT-2000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음성, 영상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또한 초고속 광대역 통신 분야에서도 기산텔레콤은 에코 캔슬러, VoIP 솔루션, IP-Phone, SDSL 등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유·무선 통신 상에서 발생하는 혼선잡음 및 울림 현상을 제거하는 통신 장비인 에코 캔슬러는 기산텔레콤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시장의 62%를 점유하는 제품이다.

최근 루슨트 테크놀러지와 이 제품의 OEM생산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ISO9001과 CE 마크 획득하여, 향후 기산텔레콤의 해외 진출의 기반이 될 제품이다.

기산텔레콤에서는 또한 VoIP Gateway(텔레프리 등 무료인터넷 전화 서비스업체에 납품)와 IP-Phone을 개발, VoIP 솔루션의 시장 확장과 일반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화 가입자 선로가 2선식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별도의 중계 장치 없이 LAN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인 SDSL(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도 생산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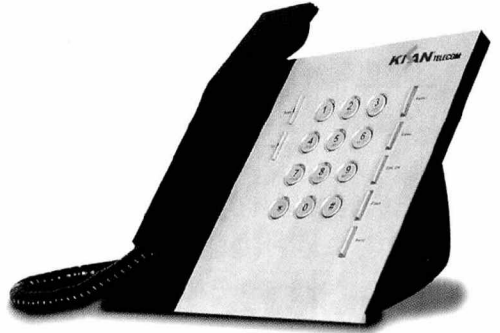
이러한 제품군을 바탕으로 기산텔레콤은 세계적인 통신시장 변화에 맞추어 의욕적으로 사업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수행과 음성에 기반한 통신장비에 주력을 하여 왔으나, 향후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이 통합되고 유·무선통신시장 모두에서 All-IP 통신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발빠르게 All-IP Network 장비에 사업방향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우선 눈앞의 과제인 IMT-2000사업에 디지털 광중계기인 DRAN(Digital Radio Access Network)과 차세대 초고속 무선통신기술인 HDR(High Data Rate) 관련 시스템 장비 기술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산텔레콤은 IMT-2000도 All-IP Network으로 진화하는 하나의 단계로 보고 IMT-2000 관련 장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에 미국 퀄컴(Qualcomm)사와 차세대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인 HDR(High Data Rate) 관련 시스템 장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스템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ll-IP 이동통신 장비업계 선두그룹으로 약진

기산텔레콤은 HDR과 함께 IP망을 기반으로 하는 IP-BTS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데이터망을 기반으로 무선통신 시스템사업에 접근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IMT-2000용 중계시스템인 DRAN(Digital Radio Access Network)은 Donor와 Remote연동을 통하여 IMT-2000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음성, 영상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Remote 모듈은 IMT-2000기지국에 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기산 텔레콤의 IP-Phone

(주)기산텔레콤

이미 국내사업자와 공동개발 중에 있으며 동시에 국내 연구기관 및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제휴로 비동기식 IMT-2000 기술(W-CDMA)도 확보하여 향후 2~3년내 All-IP 이동통신 관련 장비업체의 선두그룹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기산텔레콤의 이러한 All-IP 기반 사업전략은 유선 데이터망 장비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유·무선 통신망의 통합이 진행중인 추세에서 무선통신망 관련 핵심기술과 유선통신망 관련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핵심 성공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지난 수년간 꾸준히 축적하여 온 유선 통신망 관련 전송 및 액세스 솔루션(access solution)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몇 개의 핵심제품 개발을 완료하였다. VoIP Gateway 장비는 이미 상용화 되어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중이며, 최근 SDSL 장비를 출시하여 본격적인 인터넷 액세스(Internet access) 장비사업에 진출하였다. 또한 VDSL 장비 및 IP Phone 개발을 완료하여 유선통신망 장비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무선통신망 분야와 결합하여 All-IP 장비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품군이 갖추어지는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All-IP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자리 매김을 할 것으로 회사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때가 되면 현재 추진중인 외국 우수 회사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국내 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해외시장도 본격적으로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산텔레콤은 향후 2년 동안 약 150억원을 제품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효율적인 제품 생산을 위하여 신규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2년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향후 5년내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이사 박병기

(주)기산텔레콤 대표이사 박병기는 1994년 9월 첨단 정보통신시스템 R&D 전문회사인 (주)기산텔레콤을 설립하여 다음 세대의 지식의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인의 한 사람으로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힘써왔다. 1958년 생으로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금성통신(주) 주임연구원, 금성정보통신(주)의 선임연구원을 거쳐 94년 기산텔레콤을 설립했다. 벤처로서는 자리를 잡고 업계 선두 주자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산텔레콤을 이끌고 있는 박사장은 그러나 업계에서도 근검하기로 유명하다. 그 흔한 자가용도 없이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지난해 벤처업계가 투자 받은 돈을 함부로 써서 사회의 질타를 받은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미 기산텔레콤은 지난해 6월 TUV 라인란트로부터 통신장비 국제 규격인 CE 마크를, 7월에는 국제 표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품질 관리에 나서 기산텔레콤의 전 제품을 국제 규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5월과 10월 미국과 호주에 각각 기산텔레콤 현지 법인을 설립, 싱가포르 지사 개설 등과 연계되어 해외 시장 개척을 향한 본격적인 신평탄입니다. 이제 기산텔레콤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것입니다"

박사장의 이러한 말이 헛되이 들리지 않는 것은 수신(修身)이 먼저 선행되는 그의 행보 때문일 것이다.